

부모-자녀 관계

Parent-Child Relationship

이영(Young Lee)¹⁾

전혜정(Hey Jung Jun)²⁾

강민주(Min-Ju Kang)³⁾

ABSTRACT

In the last thirty years, societal changes have affected Korean families at a fast pace. Some of these changes include the fall of childbirth rate, expansion of women in the workforce, delay of first marriages, and rise of divorces, remarriage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These new trends have created and diversified new contexts for family structur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Both parents and children are now confronted with a myriad of new challenges and in need of understanding the newly transformed-family environments in respond to new ecological pressures. Contemporary issues concern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are discussed by analyzing the new trends and research issues on particular social issues and pressures. Future policy issues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analyses combined with the critical impac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child development.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ships(부모-자녀관계), family structure change(가족구조 변화), parent-child interaction(부모-자녀 상호작용), attachment(애착), communication(의사소통), ecological perspective(생태학적 관점).

I. 현 황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

상과 경향 중에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출산율 감소, 돌봄의 사회화 증가, 아버지 양육 참여의 증가, 가족구조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³⁾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 younglee@yonsei.ac.kr

의 변화,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과 저소득계층의 증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현상들에 따라 변화된 부모-자녀관계의 양상과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출산율 감소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우리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감소하였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의 대를 잇는 다거나 노후에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여기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관은 감소된 반면, 사랑과 애정의 대상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정서적 가치관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들 선호 사상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자녀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과열되고 이는 과열된 사교육, 조기유학, 조기교육열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치열한 입시교육을 거쳤던 2535세대 유자녀 기혼자들은 자신이 이룬 안정적 경제력과 광범위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자녀 교육에 기업 경영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알파맘’ 성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감소는 외동아 가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외동아의 성격 발달 및 사회정서 발달 등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과 외동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에 관한 연구 등 외동아의 부모-자녀관계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자율성과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나(김숙경, 1989), 최근에는 형제 유무보다 애정적, 자율성을 중시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도미향·윤지영, 2004).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큰 애착 감정을 가지며 아버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형제아보다 친밀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배매리·이규미, 2006).

2. 취업모 증가와 돌봄의 사회화 증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맞벌이 가구가 90년 27.4%에서 05년 39.4%로 증가한 점으로도 보여주듯이 사회 전반에 걸쳐 취업모의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취업모의 증가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다. 모성 취업의 증가와 더불어 돌봄의 사회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취업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육정책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이 실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기 집보다 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상호작용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취업모들이 늘어나고 있고(박영호·박미정, 2004), 부모-자녀간 효율적인 의사소통방법(한경순, 2004), 부모교육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모역할지능(Parental Intelligence)(박화윤 외, 2007; 백경숙·윤지영, 2004; 현미숙·이소희, 2004)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부모가 많아졌다(박영순, 2005).

또한 취업모의 역할과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 양육 스트레스, 정신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모성 취업으로 인한 모-자녀 간 상호작용 질의 저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문제와 직결된다는 보고가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05). 예를 들면,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양경수, 2002), 특히 취업모의 자녀가 어릴 경우 과행동성, 걱정, 불안, 산만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상, 2003).

그러나 모성 취업이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컨대,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또래 유능성이 더 높고(문혁준, 2009),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이봉섭, 1993; 한향문, 1981). 어머니의 취업은 어머니-자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모 자녀의 경우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자녀가 지각하는 모성애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영호·박미정, 2004). 이처럼 모성 취업여부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및 가사 스트레스, 양육태도, 부모효능감, 부부관계의 질, 상호작용의 질 등이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이혜상, 2003).

3. 아버지 양육 참여의 증가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모성취업의 증가와 함께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참여가 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엄모자부(嚴母慈父)형 가족이 늘어나는 등 아버지-자녀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있다(중앙일보, 1996. 9. 4).

특히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과 양육참여 정도 및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부모역할 수행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김성희, 1990; 김혜영·황정미·선보

영·김동기, 2008; 장석경·이지현, 2007). 또한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와 자녀의 일상생활 지도, 놀이 활동 참여, 지적능력 계발 등에의 참여가 자녀의 발달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장석경·이지현, 2008)과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김말경·박혜원, 2008) 이는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분담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정승희·최성규, 2006)이 보고되면서 자녀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장석경·이지현, 2008; 한유미·오경숙, 2008).

4.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변화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한부모가족,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조손가족, 기러기가족,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의존하는 썩거루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가족유형내의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난 20년간 이혼, 별거, 유기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52만 가구나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어려움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유지가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성연, 2003). 한부모 가족의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덜 긍정적이며 덜 개방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 특히 중고등학생의 소외감, 무력감, 사회적 고립 등과 관련

이 있다(민하영 · 이윤주 · 김경화, 2008). 또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자녀 간 갈등은 어머니의 우울 증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오남, 2004).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손가족이 크게 늘어나 지난 10년간 65.1% 증가하였으며 대다수의 조손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조손가족의 아동의 경우 아버지와는 접촉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어머니와는 관계는 낮거나 끊긴 경우가 많다.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나, 손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조기유학 열풍으로 조기 유학생의 수가 95년 2천명에서 06년 3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기러기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 남아있는 아버지, 해외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인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조기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귀국유학생도 02년 8천명에서 06년 1만 8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귀국 후 국내생활 부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적응에 더욱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F 이후 부모에게 의존하는 쉼터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혼자녀 뿐만 아니라 기혼자녀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담은 생애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다.

입양가족의 경우 전체 입양건수는 2003년 4,851건에서 2008년 2,55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입양 중 국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1.6%에서 2008년 52.3%로 증가하였다. 비밀 위주 입양관행 및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으로 인하여 1세 미만 아동과 여아의 국내입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이다. 2005년의 경우 국내 입양아동의 89%가 1세 미만이며, 67%가 여아였다.

20세 미만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오현경, 2004), 장애아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지속되고 있다. 장애아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장애아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되며(김미라, 2006), 장애아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장애인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아 부모를 위한 부모 프로그램 등 장애아 부모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는 등 발전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이현지, 2005).

재혼가족 또한 증가하여, 전체 결혼 중 재혼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5.9%에서 현재 25.2%로 증가하였다. 재혼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부모 역할이나 계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부정적 신화, 잘못된 신념이 남아 있으며(김연옥, 1999), 이는 계부모 역할수행이나 계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모 출산아 수는 2001년 4천 897명에서 2008년 2천 34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는 증가하고 있다. 십대 미혼모는 89년 총 미혼모의 24.9%에서 2000년 58.5%로 증가하였으며, 십대 미혼모의 재임신율도 증가하고 있다(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십대 미혼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체의 미성숙과 부적절한 산전관리, 불충분한 영양섭취, 흡연 등으로 인해 십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 장애아가 될 가능성도 더 높으며(박영주 외, 1998; 최연순 외, 1999),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체 혼인 건수 중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만 3천 건에서 2007년 3만 8천 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혼인 건수의 11.1%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명백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전재일·신효선, 2008).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어머니들은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더 수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놀이나 학습지도와 같은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신체적 애정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전경숙, 2008). 그러나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 보다 부모와의 애착정도 및 상호작용(예 : 대화, 고민상담) 빈도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전경숙, 2008).

5. 소득계층의 양극화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도시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인 도시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1982년 11%에서 1992년 7.7%까지 떨어졌다가 199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4.3%까지 상승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9). 또한 IMF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지난 15년간 빈곤층 비율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사설, 2009. 7. 14).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양과 질 모두 수준이 낮아지며(어주경, 1998), 이로 인해 자녀들의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어주경, 1998; 신혜영, 2006)고 보고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빈곤 아동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자녀관계의 향상을 매

개로 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 가정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

II. 연구쟁점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들의 주요 경향을 지난 30여년 동안 일어난 주요 사회적 변화 현상과 연결 지어 살펴보고, 미래 연구를 위한 연구쟁점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소자녀화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인식 변화

1) 연구경향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01년 이후 저출산 현상을 기술하고 원인을 살피는 연구와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초등학교 이전 또는 학령기 외동아들을 대상으로 발달 결과를 알아 보려는 것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극히 소수이다. 우리나라 외동아와 형제아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도미향, 2005; 배매리·이규미, 2006), 특히, 외동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관련된 연구들은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가 사회·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와(김숙경, 1989; 류향자, 1999) 외동아와 형제아 사이에 사회·정서발달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송나리·박성연, 1993)이 제시되어 형제유무에 의한 발달적 결과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형제 유무에 따른 발달적 차이보다 부모

의 양육태도와 부모-외동아 간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결정적인 요소인 것으로 간주됨을 볼 수 있다(도미향·윤지영, 2004; 도미향, 2005).

2) 미래의 연구 쟁점

우선, 거시적 차원의 성분업적 가족문화가 미시적 차원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형제자매가 사회적 자원(social capital)으로서 효과를 갖기 위한 최적의 보호자 대 피보호자의 비율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소자녀 가정의 아동들이 가족 외에 또래집단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와 어린이집 및 혼합 연령 집단 보육 경험 유무 등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외동아 가정 부모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자녀양육에 대해 갖는 가치관, 신념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즉, 소자녀 가족에서는 과잉보호, 학업 성취 지향적인 성향이 더욱 심각하므로,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론 측면에서도 이러한 가족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새로운 생태학적 이론의 고찰이 필요시 된다.

2. 취업모 증가와 돌봄의 사회화 증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연구

1) 연구경향

80년대에는 모의 취업여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김재근, 1986; 한향문, 1982), 90년대 들어서는 보육관련 연구(예 : 보육실태 및 수요조사, 보육정책)와 취업모 자녀의 특성(예 : 발달, 적응, 문제행동, 교육)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이봉섭, 1993;

양경수, 2002). www.riss4u.net에서 “취업모”로 검색된 368개의 논문들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취업모의 양육특성과 연관된 가족 변인과 직업 변인에 대한 탐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 역할과 자녀양육 분담이나 양육수행능력 혹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증가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발달과 부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육아정책 개발센터의 설립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만족도 및 요구도, 보육정책 효과 등에 관한 보육관련연구는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대리양육자의 양육특성(예 :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을 탐색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2) 미래의 연구 쟁점

우선, 모성 취업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직업특성 및 스트레스, 부부관계, 아동 변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므로 돌봄의 사회화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다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육의 형태와 질이 아동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누적된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예 : 기업문화, 남성의 사회화, 부모 지식 부족 등)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발달과 부부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동양육(co-parenting)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머니-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자녀와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연구하기보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분석해 보아야 한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이나 갈등 해결 전략 등의 부적절함 또는 대화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 및 가족 상담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3.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연구

1) 연구경향

2000년 이후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한부모 가족의 증가이며 이에 따라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www.riss4u.net에서 “한부모”로 검색된 128개의 논문제목으로 경향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를 다룬 연구는 모-자녀 갈등, 대처, 심리적 안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이후 조손 가족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적응 및 정신건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손 가족은 비정상적 가족이라는 시각에서 관계를 바라본 연구들이 많으며(염동훈 · 김혜영 · 안치민, 2007), www.riss4u.net에서 “조손가족”으로 검색한 92개의 논문제목으로 경향 분석한 결과, 최근 조부모와 손자녀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십년간 급증하고 있는 조기유학과 관련하여 그들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조기유학을 경험한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유학생의 부

적응, 분거 가족의 가족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유학동기, 유학 규제, 귀국학생의 적응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이순형, 2007).

이 외에도, 공개 입양을 하는 가족들이 증가하면서 비로소 입양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안재진, 2008), 입양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입양 어머니-아동 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최근 재혼 가족 또한 증가하면서, 재혼 가족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혼란과 역할 모호성, 충성심 갈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현은민, 2003), 2000년대 들어 장애아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및 애착(김은실, 2008; 임숙빈, 2000; 정남옥, 2000),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나영, 2001; 김미라, 2006; 오혜경, 2004; 이한우, 2002; 이현지, 2005)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MF 이후 증가한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자녀 관계 및 아동 발달을 단기적, 미시적으로 접근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어 왔다(신혜영, 2006; 어주경, 1998; 이경열, 2004; 전재일 · 이애재 · 이경은, 1997).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박신진, 2008; 이민주, 2006) 아직 부족하며, 주로 수혜적 서비스 위주의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자녀의 발달 문제(예 : 성취, 또래관계, 언어문제, 학교 적응 등)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미래의 연구 쟁점

첫째,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과 대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다양한 연령대의 한부모 가족 자녀의 적응에 관한 기술연구가 필요하다(김오남, 2004; 이수인·임애덕, 2007; 이경희·유영달, 2006; 이주리, 2008; 조성연, 2003, 2004; 주소희·이경은, 2005; 최경일, 2007).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갈등의 원인(예: 정서적 문제, 양육기술 미흡의 문제 등)과 대책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엄미선·전동일, 2006; 이승미·김선미, 2005). 또한, 한부모 가족내 서로 다른 구성원, 즉 모-녀, 모-자, 부-녀, 부-자 관계 등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점들을 세부적인 가족 형태에 따라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인구학적 변인과 원가족의 영향, 생태학적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조손 가족의 다양성(예: 경제수준, 부모교류 수준, 조모 가정, 조부 가정 등)을 고려한(엄동훈 외, 2007)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겪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상태가 어떠한 상호영향을 주며,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손 가족의 형성이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측면에 관한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부모 모두와 떨어져 지내는 단독 조기유학생의 부모-자녀 관계 및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새로운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연구가 요구되며 각 주제별로 종단적으로 누적된 자료 및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입양 가족, 장애아 가족, 재혼 가족 등의 가족생활주기, 자녀의 특성,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및 발달 과정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과 적응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가족형태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부모의 양육만족감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저소득층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과 연구는 수행되어지고 있으나 고소득층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으므로 각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차이 및 특성을 밝히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는 이주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겪는 문화이질감에서 비롯된 적응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을 전제하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연구와 다문화 가정과 비교 집단과의 연구(예: 일반 가정, 구조 형태별, 사회 경제적 지위별 등)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증가하고 있는 쉐거루족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대 간 의식 차이, 노년-성인자녀-손자녀 관계 등 부모-자녀관계의 세대 간 전승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성인자녀가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십대부모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도 필요하다. 특히, 십대모 연구에 비해 십대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십대의 아버지가 십대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십대부의

육구나 십대부를 도울 수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가족유형 별로 자녀들의 발달시기에 따라 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가족형태, 자녀의 연령 및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부모-자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 정책적 이슈를 출산율 저하, 취업모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등 주요 사회현상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지원 정책과 서비스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부모-자녀 관계 지원 정책과 서비스 또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80~90년대에는 출산억제정책이 강조된 반면, 2000년대에는 출산장려정책(예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이 2006년 8월부터 시행)이 강조되었다. 이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고,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하며,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그러나 새로마지 플랜은 부모-자녀 관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소자녀 가정의 증가와 동시에 맞벌이 가정 증가 현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 향상과 양육시설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부모가 외동이나 소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실제로 부모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외동아 성별 구성에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취업모 증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지원 정책과 서비스

돌봄의 사회화가 지난 20년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한국 부모-자녀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자료는 거의 없고, 따라서 정책마련의 근거가 미흡하다. 80년대까지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되던 취업모 자녀를 위한 보육정책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 주관부처가 일원화된 후 10여 차례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해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이 공포되었으며, 그 이후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및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꾀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또한, 취업모의 과도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정책개발센터와 같은 정책연구기관을 통한 보육정책 개발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취학아

동을 위한 시간제 보육이 확대되어야 하고 수요에 비해 충족율이 낮은 영유아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과 신뢰로 선호도가 높으나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하다(여성가족부, 2005). 이에, 일반보육시설에서도 국공립수준의 보육의 양질과 저렴한 비용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예 : 서울형 어린이집). 또한, 보육시설의 보육시간과 부모의 근무시간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성의 양육 참여를 장려하고 인식 변화 유도 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장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의무화하며 탄력근무제, 보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배우자 출산 간호휴가, 초중등교과서 및 대학 교양교육 활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지원 정책과 서비스

한부모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2000년대에 이르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국가지원(예 : 모·부자복지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숙 외, 2000; 신혜령·정재훈·김성경, 2006).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예 : 부모-자녀 정서적 지원, 학습 및 가사서비스),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상담사업(예 :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교육, 가족캠프), 모·부자복지시설

의 서비스(예 : 방과 후 아동보육 및 학습지원, 유아 야간보육, 집단상담프로그램)등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김승권 외, 2004; 신혜령 외, 2006). 이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가 이혼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단상담 및 자조 모임 등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개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다수가 빈곤 문제를 경험하므로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의 실행 시, 심리사회적 지원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김승권 외, 2004).

조손 가족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예 : 익산, 천안 등)에서 조손 가족 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만(염동훈 외, 2007), 경제적 지원, 손자녀 상담·교육 서비스와 친부모와의 교류 지원 등이 필요하며 정보에 둔감한 조손 가족을 위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기러기 가족의 경우, 역기능적 부모-자녀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입양 가족이나 재혼가족의 경우, 이들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의 건강성을 위해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계부모 역할이나 계부모-자녀 관계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계부모-자녀와 친척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의 제정이 필요하며, 건강한 계부모-자녀 관계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부모와 계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아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또한 지원되어야 한다. 이들 가족의 어머니를 위한 스트레스 대처 및 각 발달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 방법의 개발과 만성적 소진에 대한 치료, 부부치료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조모임을 통한 정서적·교육적 지원 역시 절실하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과 일상생활을 돕는 지원기관은 지난해 546곳에서 추가로 179개가 신설되면서 각 시군 구별로 평균 3.2개꼴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지지체계가 요구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가정 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실제적인 양육도움을 제공하고, 시군구의 육아관련단체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며 모-자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공동육아장소 운영 방안을 재고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의 언어적 장벽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시각적으로 전달 가능한 형태(예 : 가정방문 또는 비디오 자료 등)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한국어 및 모국어 사용을 활성화하고, 언어발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며 교과과정으로서의 이중언어교실 (bilingual class)을 개설하고 언어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득계층의 양극화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저소득 계층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문제별 역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다양한 저소득 가족 형태에 대한 세분화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상호작용의 교육과 시범, 부모-자녀의 긍정적 정서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말경·박혜원(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와 K-BSID-II 수행간의 관계 : 양육 스트레스의 중재효과 탐색. *아동학회지*, 29(1), 243-355.
- 김미경·이숙현(1990).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2), 98-113.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 외(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1990). 유아기 아버지의 역할수행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권·양옥경·조애저·김유경·박세경·김미희 (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옥(1999). 재혼가정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41-62.
- 김오남(2004).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모 자녀 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07-520.
- 김숙경(1989).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10(1), 43-64.
- 김재근(1986). 맞벌이 가정 아동과 홀벌이 가정 아동

- 의 제 심리적 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영 · 황정미 · 선보영 · 김동기(2008). 남성의 부정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8, 1-344.
- 도미향(2005). 외동이의 특징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교육연구, 2(2), 63-81.
- 도미향 · 윤지영(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6.
- 류향자(1999).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 특성과 학교 적응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혁준(2009).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 어머니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2), 57-69.
- 민하영 · 이윤주 · 김경화(2008).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5-23.
- 박신진(2008). 영아기 모-자녀 상호작용 중재프로그램 효과 연구 -영아 신희 민감성 증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5), 151-164.
- 박영순(2005).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관한 취업모의 인식과 요구 조사.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영주 · 구병삼 · 홍명호 · 김탁 · 신재철 · 이찬 · 문준 · 오민정(1998). 한국 10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경험실태. 대한간호학회지, 28(3), 573-582.
- 박영호 · 박미정(2003).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모성에 및 심리적 성장 환경. 교육이론과 실천, 13(2), 193-210
- 박화윤 · 김선혜 · 이성희(2007). 부모역할지능과 어머니의 개인 및 양육관련변인, 자녀교육 및 가정-학교협력에 대한 신념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8, 85-101.
- 배미리 · 이규미(2006). 청소년 외동아 · 형제아의 부모 · 또래에착과 자기애. 한국가족복지학, 11(1), 113-130.
- 백경숙 · 윤지영(2004).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지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19.
- 보건복지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구)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 2008년 보육사업 안내.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1회 여성복지세미나자료.
- 신혜령 · 정재훈 · 김성경(200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신혜영(2006).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발달 태도 및 가정문해 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 개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재진(2008). 국내입양가족의 공개입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38(2008), 271-300.
- 양경수(2002).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1(2), 87-98.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엄미선 · 전동일(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 리뷰, 11, 75-104.
- 여성가족부(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 교육 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5). 보육통계 2005년 12월. 서울 : 여성가족부.
- 염동훈 · 김혜영 · 안치민(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이경열(2004). 저소득 가정 어머니-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능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경희 · 유영달(2006). 동거부모형태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성과 심리적 안녕. 한국가족학회, 18(2), 115-138.
- 이민주(2006).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한 그림책 읽기 중재 활동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

- 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섭(1993).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인·임애덕(2007). 한부모의 과거 가족경험, 자녀스트레스, 심리적 안녕의 관계와 성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제주지역의 저소득층 한부모들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2), 1-34.
- 이순형(2007). 조기유학 유형별 분석을 위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이승미·김선미(2005).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례에 비추어 본 지원방안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9(4), 95-112.
- 이주리(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아동학회*, 29(3), 115-125.
- 이혜상(2003).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1(8), 337-354.
- 장석경·이지현(2008).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73-89.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 학교 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전재일·신효선(2008).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4(3), 251-283.
- 전재일·이애재·이경은(1997).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3(1), 55-72.
- 정승의·최성규(2006).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언어유형. *언어치료연구*, 15(3), 163-194.
- 조성연(2003).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33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한부모 가족 : 실태, 문제, 가정관리전략*, 33-56.
-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 주소희·이경은(2005). 이혼 후 양육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행동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17(3), 123-153.
- 중앙일보(1996. 9. 4). '엄격한 어머니 자상한 아빠' 가정 새풍속.
- 최경일(2007).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4(4), 145-168.
- 최연순·장춘자·조희숙·최양자·장순복·박영숙 외(1999). *여성건강 간호학*. 서울 : 수문사.
- 통계청(2002). *인구동태 통계자료*. 대전 : 통계청.
- 통계청(2005). *가계수지 동향*. 대전 : 통계청.
- 통계청(2008). *사회통계조사*. 대전 : 통계청.
- 통계청(2008).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대전 : 통계청.
- 통계청(1992, 1997, 2002, 2006).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 통계청.
- 한경순(2004). 방과후 보육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미·오경숙(2008).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른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47-558.
- 한향문(1982).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 및 인성 특성과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논총*, 제17권. 서울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미숙·이소희(2004). 아동기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의 타당화.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107-134.
- 현은민(2003). 재혼가족의 아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101-12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2009년 8월 10일 투고, 2009년 11월 6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